

韓國 靑少年의 藥物濫用과 非行行爲

金 聖 二

(梨花女子 大學校 社會事業學科)

〈目 次〉

I. 問題提起와 研究目的	IV. 考 察
II. 研究方法	V. 結 論
III. 主要發見	

I. 問題提起와 研究目的

우리나라에서 靑少年들의 藥物濫用이 社會問題의 하나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였다.¹⁾ 그 당시만 해도 藥物濫用은 治療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分野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에 들어와 본드 등의 藥物濫用으로 인한 被害者가 속출하게 되자 약물남용 人口層에 관한 關心이 증가되게 되었다. 특히 삶의 質과 人口의 資質向上에 관심을 갖는 研究者들에게는 구체적인 政策開發에 앞서 全國의인 藥物濫用의 실태 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研究들이 발표되었다(예: 이재광 1987²⁾, 윤동기 1987³⁾, 주왕기 외 1983⁴⁾ 등).

그러나 지금까지의 研究는 調查對象集團이나 調查地域이 偏重되어 있어 全國의인 對策을 마련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靑少年들의 藥物濫用에 대한 對策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①靑少年들이 지금 현재 어떤 藥物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② 이러한 藥物이 靑少年들의 非行과는 어떻게 관련했는지, ③靑少年

들의 藥物使用에 영향을 주는 要因들은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즉, 靑少年들의 藥物濫用이 社會問題가 되는 이유는 靑少年非行行爲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前提⁵⁾하에서 이들의 實態를 把握하고 그 關係를 糾明하고자 한 것이 研究의 主目的이었다.

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

研究對象은 3개 集團으로 區分하였다. 調查當時 중·고등학교 2학년예 재학중인 者를 學校靑少年 集團에, 20세 미만으로 完全 또는 部分 就業 중인 者를 勤勞靑少年 集團에, 少年院에 在所 중인 者를 非行靑少年 集團으로 分類하였다.

2. 研究道具

學校靑少年, 勤勞靑少年, 非行靑少年 등 3개 集團 靑少年들에 대한 自己記入式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設問項目들은 ①個人的 背景 ②家庭生活 ③學校生活 ④非行行爲 ⑤藥物濫用 등에 관한 총 128개 問項으로 構成되었다.

1) 주왕기, 허분영, 최영욱, 노성규, "중·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실태", 「사회과학연구」, 제18집, 강원대학교, 1983, p. 162
 2) 이재광, 「한국청소년의 약물남용 실태 및 상담전략」, 서울 청소년 지도육성회, 1987, pp.1-20
 3) 윤동기, 「독극물법 위반소년에 대한 처우방안」, 대전소년감별소, 1987, pp.1-174
 4) 주왕기, 허분영, 최영욱, 노성규, "중·고등학생들의 약물남용실태" 「사회과학연구」, 제18집, 강원대학교, 1983, pp.161-183
 5) Elliott, D.S., Huizinga, D., Ageton, S.S.,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Sage publications, Inc., 1985, p.12

3. 資料蒐集 方法

大韓赤十字社 산하 각 支社 靑少年課의 협조로 1988. 2. 12~28까지에 걸쳐 資料가 蒐集되었다. 학교청소년, 근로청소년, 비행청소년의 3개 集團에 대해 割當標出(quater sampling) 方法으로 4, 440매를 수집하여 이중 無誠意하거나 不完全한 설문지 219매를 제외하고 4,221매를 分析對象으로 삼았다(표1 참조).

Table 1. The Distribution of the Respondents

	Urban area	Rural area	Total
Junior & senior high school students	833	867	2,700
Working youths	432	173	605
Delinquent youths	488	428	916
Total	2,753	1,468	4,22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urvey Respondents

Content	High school students (N=2,700)	Working youths (N=605)	Delinquent youths (N=916)
1. Sex			
Male	52.3	19.3	92.6
Female	47.3	80.3	7.3
2. Age			
12-14 years old	22.7	0.4	2.2
15-17 years old	56.9	20.8	36.3
18-20 years old	19.9	78.7	61.1
3. School background			
Elementary school graduates	0.4	2.5	8.7
Junior high school students	44.4	1.5	0.8
drop-outs	0.2	0.7	38.8
graduates	0.3	24.3	12.8
Senior high school students	54.3	35.0	12.8
drop-outs	0.0	4.6	29.4
graduates	0.0	31.0	6.2

Ⅲ. 主要發見

1. 研究對象者의 一般의 特性

學校, 勤勞, 非行 靑少年들 중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學校靑少年인 경우에는 男女 比率이 均衡하고 中學校와 高等學校에 비슷하게 分布되어 있었다. 勤勞靑少年의 경우에는 女子勤勞者가 80.5%로 많은 점이 특색이었다. 非行靑少年의 경우에는 中學校와 高等學校 中退者가 38.6%와 68.2%로서 극히 높았고, 대부분(92.6%)이 男子이었다.

비행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의 家庭環境은 貧困地域에 사는 경우나 缺損家庭에 사는 경우 모두에 있어 學校靑少年 보다 나빴다(표2 참조).

2. 藥物濫用實態

靑少年들의 藥物濫用實態를 보다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 吸煙, 飲酒는 물론 疲勞回復劑 사용까지도 포함하였다.

(Table 2. Continued)

4. Religious preference indicated			
Yes	62.9	54.2	72.5
No	36.9	45.8	27.2
5. Economic conditions			
High	13.2	4.1	8.1
Middle	74.3	72.9	61.1
Low	12.2	22.8	30.8
6. Living environment			
Residential area	82.4	74.4	70.4
Non-residential areas (business area or industrial area)	16.6	24.4	29.2

藥物濫用이라 함은 醫療行爲規定에 맞지 않게 藥物을 持續的으로 혹은 散發的으로 過用하는 行위를 말하며, ① 적어도 한달이상, ② 社會生活에 영향을 줄 정도로 ③ 心理的, 身體的으로 依存的으로 사용하는 것이 嚴格한 意味에서의 藥物濫用狀態이나⁶⁾, 본 연구에서는 研究對象이 靑少年이므로 使用해 본 적이 있는가를 물어 그 實態를 파악하였다.

藥物的 種類를 分類함에 있어서는 世界精神醫學會(APA)나 世界保健機構(WHO) 등의 分類들과 中央大 神經精神科教室에서 分類한 것을 기초로 藥師들의 諮問을 얻어 다음과 같은 9個로 分類하여 實態를 조사하였다(표3 참조).

① 吸煙: 흡연경험자는 學校靑少年 36.6%, 勤勞靑少年 32.1%로 비슷한 경향이나 非行靑少年은 94.4%로 거의 대부분이 흡연경험자이었다.

Table 3. Statistics of Drug Usage in the Different Groups

Content	High school students	Working youths	Delinquent youths
Smoking	36.6	32.1	94.4
Drinking alcohol	50.3	71.6	93.3
Tonic(non-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86.3	88.4	90.9
Sedative	67.0	77.4	71.3
Stimulants	15.4	15.7	18.3
Tranquilizers	1.4	4.5	27.7
Hypnotics	0.4	2.6	7.1
Marihuana	0.7	0.8	13.0
Glue-sniffing	3.7	5.0	40.7

6) 윤동기, 「전계서」, p.11

② 飲酒 : 음주경험자는 學校青少年 50.3%, 勤勞青少年 93.3%로서 學校青少年的 折半이 飲酒경험이 있고, 各集團들 間的 差異는 20% 정도이었다.

③ 疲勞回復劑 : 피로회복제 사용경험자는 學校, 勤勞, 非行青少年集團 모두 90% 내외의 높은 水準이었다.

④ 鎮痛劑 : 진통제 사용경험자는 學校, 勤勞, 非行青少年集團 모두 70% 내외이었으나, 勤勞青少年集團에서 77.4%로 가장 높아 근로청소년들이 勤勞와 관련하여 많은 鎮痛劑를 사용하는 事實을 엿볼 수 있다.

⑤ 覺醒劑 : 각성제 사용경험자는 學校, 勤勞, 非行青少年集團에서 모두 15~18%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

⑥ 安定劑 : 안정제사용은 學校, 勤勞青少年 모두 5% 미만의 使用頻度를 나타냈으나, 非行青少年들이 27.7%라는 높은 頻度를 나타내 安定劑濫用과 非行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⑦ 催眠劑 : 최면제 사용은 學校青少年 0.4%, 勤勞青少年 2.6%, 非行青少年 7.1%로서 催眠劑使用도 安定劑와 같이 非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⑧ 마리화나 : 學校青少年的 0.7%, 勤勞青少年的 0.8%로 낮으나 非行青少年은 13.0%나 되는 높은 使用率을 나타냈다.

⑨ 본드 : 본드사용경험자는 學校青少年 3.7%, 勤勞青少年 5.0%로 비슷하나, 非行青少年集團에서는 40.7%로 높았다.

지금까지 9가지 藥物使用經驗者의 分布를 볼 때 :

첫째, 우리나라 青少年들의 상당수가 吸煙, 飲酒의 經驗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疲勞回復劑, 鎮痛劑, 覺醒劑의 濫用이 뚜렷하여 藥物依存度가 높았으며,

셋째, 安定劑, 催眠劑, 마리화나, 본드 使用經驗者는 非行青少年集團에서 더욱 많아 藥物과 非行과의 關聯性을 알 수 있었다.

3. 非行行爲 實態

青少年들의 藥物濫用이 주요 社會問題가 된 이유는 약물남용 청소년의 數가 增加하고 年少化 함은 물론 藥物濫用이 非行이나 犯罪에 깊은 관련을 맺기 때문⁷⁾이라고 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家庭이나 學校 및 社會生活에서 찾아 볼 수 있는 代表的인 社會的 非行을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整理하여 그 實態를 파악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Table 4. Statistics of Delinquent Behavior in Different Groups

Content	High school students (junior:senior)	Working youths	Delinquent youths
Hostility against adults	37.9 (26.5:47.4)	42.3	65.2
Truancy	16.5 (15.1:17.6)	42.3	85.8
School suspension	7.1 (5.9: 7.9)	8.8	51.2
Run away	7.6 (4.9: 9.7)	9.4	79.0
Picked up by policy	2.9 (1.1: 4.3)	3.6	64.4
Possession of weapons	8.9 (6.7:10.6)	5.1	66.3
Taking money by force	8.1 (8.1: 8.1)	5.0	75.2
Sexual promiscuity	8.3 (6.8: 9.3)	14.5	75.7
Watching adult video	32.3 (25.6:37.8)	30.9	83.3
Visiting drinking establishment	19.6 (5.6:31.1)	46.6	84.3

7) Farrow, J.A, and French, J., "The Drug Abuse Delinquency Connection Revisited", *Adolescence*, Vol.21 No.84, Libra Pub., 1986, p.958

(표4 참조).

① 反抗：“父母나 어른들에게 記憶에 남을 정도로 심하게 反抗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學校, 勤勞靑少年은 40% 내외로 비슷하게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非行靑少年은 65%로 높았다.

② 無斷缺席：“學校나 職場에 無斷缺席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學校靑少年은 16.5%, 勤勞靑少年은 42.3%, 非行靑少年은 85.8%이었다.

③ 學校處罰：學校生活 중에서 컨닝이나 싸움 등의 問題로 學校로 부터 處罰받은 靑少年은 學校, 勤勞靑少年들에서는 8% 내외이었고, 非行靑少年은 그 여섯배가 넘는 51.2%이었다.

④ 家出：家出經驗은 위의 학교처벌에서와 같이 學校·勤勞靑少年들에서는 8% 내외이었으나, 非行靑少年들은 그 열배인 79.0%이었다.

⑤ 警察署 保護：學校, 勤勞靑少年은 경찰서 보호 경험자가 3% 내외이나, 非行靑少年 중에서는 66.3%이었다.

⑦ 金品갈취：金品갈취 경험자는 學校靑少年 중에서는 8.1%, 勤勞靑少年 중에서는 그 折半정도인 5.0%로 낮았고, 非行靑少年 중에서는 75.2%이었다.

⑧ 性關係：성관계 경험자는 學校靑少年 중에서는 8.3%이고, 勤勞靑少年 중에서는 14.5%이고 非行靑少年 중에서는 75.7%이었다.

⑨ 淫亂비디오 觀覽：음란비디오 관람 경험자는 學校, 勤勞靑少年 중에서는 30% 정도이고, 非行靑少年 중에서는 83.3%이었다.

⑩ 술집出入：술집 출입 경험자는 學校靑少年 중에서는 19.6%이고, 勤勞靑少年 중에서는 46.6%이고, 非行靑少年 중에서는 84.3%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學校靑少年들은 40%정도가 父母나 어른에게 심하게 反抗해 본 적이 있고, 30% 정도가 음란비디오를 봤다고 한다. 또한 無斷缺席을 하거나 술집을 出入하는 靑少年이 16% 정도 되었다. 特記할 것은 警察署保護를 받은 靑少年이 3%나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學校處罰, 家出, 흉기所持, 金品渴就, 性關係 등의 問題性 非行行爲를 한 靑少年이 각 應答分布에서 8% 정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볼 때 學校內에서는 8%의 심각한 非

行行爲 靑少年集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는 16% 정도의 無斷缺席, 술집出入 등을 일삼고 있는 不良性 靑少年 集團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30~40% 정도의 음란비디오 관람이나 反抗 등의 가벼운 非行行爲集團이 있다는 점이다.

勤勞靑少年들은 일반적으로 學校靑少年과 비슷한 傾向을 보이거나 無斷缺勤, 性關係, 술집出入 比率이 높았다. 無斷缺勤率이 높은 것은 勤勞靑少年의 就業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性關係, 술집出入 比率이 높은 것은 勤勞靑少年의 無節制한 傾向과 아울러 社會生活人으로서의 經驗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非行靑少年들은 역시 非行行爲 部門에서 뚜렷이 非行率이 높음을 나타냈다. 모든 非行行爲 部門에서 50% 이상의 經驗率을 보였다. 學校處罰과 警察署 保護 등에서만 50% 이내이었고, 대부분의 非行行爲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었다.

4. 藥物濫用과 非行行爲 經驗間의 發生時期 分析

靑少年들의 藥物使用과 非行行爲間의 關係를 糾明하기 위해서 藥物을 使用해 본 적이 있는 청소년과 非行行爲 經驗이 있는 청소년들만을 선정하여 各個의 經驗을 언제 처음 使用했는가를 分析하였다(표5,6 참조). 표5에서 提示되고 있는 세 집단의 藥物使用時期와 非行行爲時期 중에서 가장 多數를 차지하는 學校靑少年들의 각 經驗時期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에서 보면 學校靑少年들은 疲勞回復劑 濫用으로 부터 藥物濫用을 시작한다. 13歲에 吸煙을 하고 14歲에 鎮痛劑를 사용하며, 14歲 후반에 집중적으로 覺醒劑, 飲酒, 본드, 마라화나를 사용하고, 15歲에 安定劑, 16歲에 催眠劑 使用을 시작한다.

非行行爲는 無斷缺席으로 부터 시작한다. 이 無斷缺席은 吸煙을 시작한 바로 직후인 13歲에 나타나며, 곧이어 金品渴就의 非行을 저지르게 된다. 14歲 후반에 가서는 學校處罰을 받고, 이 時期에 反抗과 家出이 뒤따른다. 이때 覺醒劑 服用, 飲酒 등이 並行되어 일어나며, 家出 뒤에 본드, 마라화나 등의 藥物을 使用한다. 15歲에 들어 淫亂비디오를 보거나 흉기所持가 동시에 일어난다. 음란비디오 관람은 性關係를 자연 수반하게 되고, 安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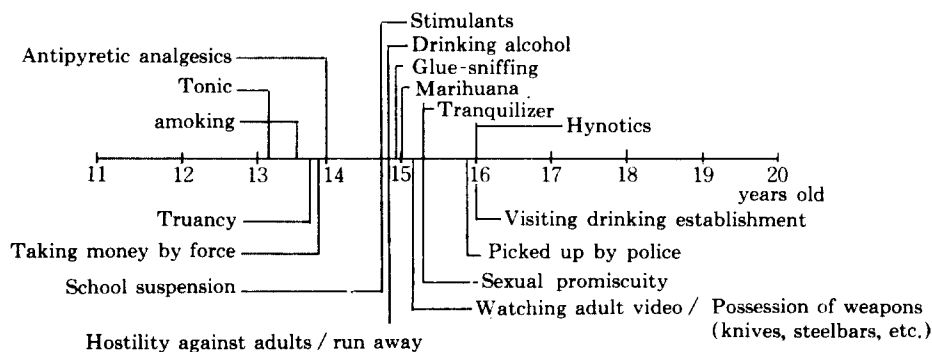
Table 5. The First Experience of Drug Abuse among Youths according to Age

(mean / SD)

Content	High school students	Working youths	Delinquent youths
Smoking	13.5 / 3.3	14.5 / 3.3	14.2 / 1.9
Drinking alcohol	14.8 / 2.6	16.6 / 2.5	14.4 / 1.9
Sedative	14.0 / 2.5	16.4 / 2.5	15.1 / 2.5
Tranquilizens	15.2 / 2.7	16.5 / 3.0	15.7 / 1.7
Hypnotics	16.0 / 1.5	17.9 / 2.3	16.0 / 2.0
Stimulants	14.7 / 1.6	16.1 / 2.0	15.1 / 1.9
Tonic	13.2 / 2.8	16.2 / 2.6	14.3 / 2.6
Marihuana	15.0 / 2.2	17.0 / 3.5	16.0 / 1.7
Glue-sniffing	14.9 / 2.3	16.3 / 2.4	15.2 / 1.9

Table 6. The First Experience of Deviant Behavior among Youths according to Age

Content	High school students	Working youths	Delinquent youths
Hostility against adults	14.8 / 2.2	15.5 / 2.3	15.0 / 1.9
Truancy	13.6 / 3.1	16.7 / 2.5	14.3 / 2.1
School suspension	14.7 / 2.0	15.5 / 2.5	14.5 / 1.8
Run away	14.8 / 2.4	15.4 / 2.7	14.3 / 1.9
Picked up by police	15.8 / 1.8	15.8 / 2.4	15.2 / 1.8
Possession of weapons	15.1 / 2.1	16.0 / 2.7	15.3 / 1.8
Taking money by force	13.8 / 2.8	14.7 / 2.8	15.0 / 1.8
Sexual promiscuity	15.2 / 2.2	16.3 / 2.9	15.3 / 1.7
Watching adult video	15.1 / 2.0	17.5 / 2.0	15.2 / 1.7
Visiting drinking establishment	16.0 / 1.9	17.4 / 2.3	15.2 / 1.7

Figure 1. The First Experience of Drug Abuse and Deviant Behavior among Youths according to Age

劑 등의 복용도 이 時期에 나타난다. 그 결과 15歲 후반에 가서 警察署 保護나 술집出入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催眠劑 등의 藥物服用을 시작한다.

위의 사실로 볼 때 13歲는 吸煙開始時期로서 무단결석, 금품갈취가 일어나는 ① 非行行爲 始作時期로, 14歲는 진통제, 음주를 비롯한 약물을 남용하고, 학교처벌, 반항과 가출이 있는 ② 非行行爲 進行時期로, 15歲는 안정제, 최면제를 사용하며, 음란비디오, 성관계 및 경찰보호를 받는 ③ 非行行爲 發展時期로 나뉘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段階別로 藥物이 심해가는 傾向과 非行이 심해가는 關係를 時期的으로 分析해 볼 때 藥物濫用과 非行 青少年 間의 밀접한 相關關係를 볼 수 있다.

5. 藥物濫用과 非行行爲 經驗間의 要因分析

학교청소년들의 藥物濫用과 非行行爲와의 關聯性을 內容的으로 分析하기 위해서 要因分析(Factor analysis) 方法을 사용하였다. 즉, 非行行爲들과 그에 관련되는 藥物을 發見하기 위해서 학교청소년들이 응답한 藥物濫用經驗 9個와 非行行爲 10個를 要因分析한 것이 表7에 제시되어 있다.

表7에서 보는 바와 같이 3個의 主要要因이 발견되었다. 이들 3個 主要요인들 중에서 要因負荷值(Factor loading)가 .500 이상인 變數들을 각 要因別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要因 1에서는 본드, 家出, 警察署 保護, 金品갈취 등이 主要變數로 나타나 본드는 심각한 非行行

Table 7. Factor Analysis on Drug Abuse and Deviant Behavior among Sudentets

Content	Factor 1	Factor 2	Factor 3
Smoking	.343	.605	-.012
Drinking alcohol	.058	.615	.091
Sedative	.024	.137	.083
Tranquilizers	.149	.042	.366
Hypnotics	.227	.074	.859
Stimulants	.123	.420	.164
Tonic	.081	.372	.005
Marihuana	.363	.061	.732
Glue-sniffing	.567	.085	.251
Hostility against adults	.235	.195	.095
Truancy	.419	.166	.102
School suspension	.429	.203	.164
Run away	.715	.104	.088
Picked up by policy	.722	.070	.285
Possession of weapons	.488	.383	.097
Taking money by force	.540	.278	.172
Sexual promicuity	.383	.282	.123
Watching adult video	.413	.618	-.020
Visiting drinking establishment	.360	.444	.098
설명변량 (%)	39.4	14.3	9.8
누적설명변량	39.4	53.7	63.6

※ 요인 4 이하는 요인부하치가 .500 이상인 것이 없어 제시하지 않았음.

爲와 관련된 攻擊性非行行爲의 대표적 藥物이고,

要因 2에서는 吸煙, 飲酒, 淫亂비디오 관람이 主要變數로 나타나 吸煙과 飲酒는 음란비디오 觀覽 등의 快樂性 非行行爲의 대표적 藥物이며,

要因 3에서는 催眠劑, 마리화나가 主要變數로 나타나 攻擊的이거나 快樂的 非行과는 관계가 적은 退行性 非行行爲의 대표적 藥物임이 밝혀졌다.

要約한다면, 본드는 攻擊的인 靑少年들과, 吸煙, 飲酒는 快樂追求의 紊亂한 靑少年들과, 催眠劑, 마리화나는 社會逃避的인 靑少年들과 關聯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6. 藥物濫用의 理由

학교靑少年들이 藥物을 濫用하는 理由는 消極的, 中立的, 積極的 이유로 나누어 보는 것이 體系的이다.⁸⁾

藥物을 사용하는 理由의 消極的 側面이라고 함은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잠을 안자기 위해서”, “심심해서”, “父母나 선생님에 대한 反撥心”으로 藥物을 사용하는 退行的이고 否定的인 側面을 말하고, 中立的 側面이라 함은 “손쉽게 利用할 수 없

어서”, “藥에 대한 副作用을 모르고”, “값이 싸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를 끊기 위해서” 등과 같이 機會的이거나 代替的인 理由에서 藥物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積極的인 側面이라 함은 “好奇心에서”, “強한 힘을 얻기 위해서”, “황홀한 神秘感의 追求로”, “親舊를 사귀기 위해서” 등의 肯定的이고 發展的인 認識에서 나온 藥物使用 態度를 말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藥物을 使用하는 가장 큰 理由는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41.8%)”, “잠을 안자기 위해서(19.7%)” 등의 消極的인 理由가 67%로 3분의 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손쉽게 利用할 수 있어서(16.6%)”, “藥에 대한 副作用을 모르고(3.6%)” 등의 中立的 理由이었다. “好奇心(4.2%)”이나 “強한 힘을 얻기 위해서(3.0%)” 등의 積極的인 理由는 12%이었다.

이 結果를 볼 때 우리나라 靑少年들은 好奇心이나 強한 힘을 얻기 위한 理由에서 보다는 “괴로움과 잠을 안자기 위해서”와 “손쉽게 利用할 수 있는” 理由에서 주로 濫用하고 있으므로 個人的 苦悶, 入試, 그리고 藥物流通의 無秩序에 그 原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8. Reasons for Drug Use

Motives	Reasons for use	%
Passive motives	- to release stress	42.8
	- to stay awake	19.7
	- to relieve boredom	4.9
	- rebellion against adults	0.5
Neutral motives	- easy accessibility of drugs	16.6
	- ignorance of the side effects of drugs	3.6
	- low price	1.1
	- to stop drinking & smoking	0.3
Active motives	- curiosity	4.2
	- to increase strength	3.0
	- to feel ecstasy	2.2
	- peer pressure	2.2

IV. 考 察

본 연구에서는 學校靑少年들 중 飲酒하거나 吸煙하는 靑少年이 각각 50%와 36%이고, 覺醒劑는 15%이며, 安定劑, 催眠劑, 마리화나, 본드 등의 심각한 藥物을 使用하는 靑少年은 1~4%로 밝혀졌다. 이는 1986년 美國의 中·高等學生들 중 飲酒 79%, 覺醒劑 25%, 安定劑, 催眠劑, 마리화나 등은 5~46% 사용하고 있다⁹⁾는 統計値보다는 낮은 것이다.

그러나 特記 할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잠을 쫓는데 주로 使用된다고 볼 수 있는 覺醒劑 사용에 있어서, 美國의 25%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에서도 15%로 높게 나타난 事實과 催眠劑, 安定劑 등의 기타 深刻한 藥物使用에서는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는 事實이다.

이 두가지 事實의 理由는 藥物을 使用하는 理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美國에서는 好奇心이나, 強한 힘을 갖기 위해서나, 幻覺效果를 追求하는 등의 積極的 이유에서 藥物을 사용하나¹⁰⁾ 우리나라 靑少年들은 藥物使用를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나, 잠을 쫓기 위해 使用하는 등의 消極的 理由比率이 높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본드가 다른 藥物과는 달리 4%로 높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앞으로 積極的 理由로 藥物을 服用하는 현상을 豫示해 주고 있다.

美國의 學者들¹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藥物濫用과 非行行爲間的 關係도 본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더욱이 非行靑少年들은 여러가지 藥物을 사용하고 있다는 事實을 통해서 Tinklenberg¹²⁾가 밝힌 여러 藥物使用과 強力犯罪와의 關係性도 再 檢證되었다.

藥物濫用과 非行行爲 時期에서도 關聯性을 찾아 볼 수 있었다. 美國의 경우 吸煙을 10.2歲에서 시작해서 마리화나 11.2歲, 飲酒 11.6歲, 安定劑 등의 其他 藥物 12歲, 麻藥類 13歲의 進行過程을 보

이고 있다.¹³⁾ 우리나라에서는 吸煙을 13.5歲에 시작해서 飲酒 14.8歲, 其他藥物 14~15歲, 마리화나 15歲의 藥物 使用時期形態를 보이고 있어 美國에 비해 약 2年間 늦게 發生하며, 進行順序는 비슷한 傾向임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마리화나 사용은 文化的 差異를 나타내고 있다.

藥物濫用과 飛行行爲間的 要因分析도 Fors와 Rojek¹⁴⁾가 美國 靑少年들을 대상으로 한 研究와 같았다. 그들은 藥物과 非行과의 關係分析에서 본드는 家出, 自動車 도적, 暴行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飲酒, 吸煙은 마리화나, 興奮劑 사용과 관계가 깊고, 安定劑, 催眠劑 使用은 麻藥販賣와 관계가 깊다고 하였다.

본 研究에서도 이 3個 要因이 再 證明됨으로써 본드는 攻擊性 非行, 吸煙과 飲酒는 快樂性 非行, 催眠劑, 마리화나는 退行性 非行을 代表하는 藥物임을 밝혀내며 확실히 명명할 수 있었다.

V. 結 論

우리나라 靑少年들의 藥物 濫用實態는 外國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본드 사용이나 覺醒劑의 濫用에서 우리나라의 特需性이 나타났다. 더욱이 美國에 비해 약간 늦기는 하나 早期 藥物 使用現狀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藥物使用이 靑少年 非行行爲와도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先導해 가고 있는 現狀도 發見할 수 있었다.

또한 藥物의 種類에 따라 어떤 非行行爲를 誘發시키거나 關係된다는 事實도 발견 할 수 있었다.

藥物濫用은 어떤 單一 社會的 要因에 의한 것이 아니고 父母, 同僚, 教師 및 靑少年 관련 社會制度, 특히 入試制度 등이 複合的으로 관련된 問題이다.

그러므로 靑少年에 關聯된 모든 사람과 組織은 앞으로 이 問題에 더욱 關心을 기울여야 하겠다.

9) Barnes, G.M., "Adolescent Alcohol and Other Drug Use", *Practice Applications*, 3(4), 1986, pp.2-5

10) Hundleby, J., "Drug Usage and Outstanding Performance among Young Adolescent", *Addictive Behavior*, Vol. 10, 1985, p.419

11) Farrow, J.A., & Forench, J., "The Drug Abuse-delinquency Connection", *Adolescence*, 21(84), 1986, p.951

12) Tinklenberg, J.R., Murphy, P., Murphy, P.L., & Pfefferbaum, "A Drugs and Criminal Assaults by Adolescents",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Vol.13, 1981, pp.227-287

13) Farrow & French, *Op. Cit* p.955

14) Fors, S.W. & Rojek, D.R., "The Social and Demographic Correlates of Adolescent Drug Use Patterns", *Juvenile Drug Education*, 13(3), 1983, p.211

<Abstract>**Drug Abuse and Delinquency Among Young People in Korea****Kim, Soung-Yee**

(Ewha Wamans University)

I. Introduction

Since the 1970's drug abuse among young people has increasingly become a social problem in Korea. In the 1980's, drug abuse, especially glue sniffing, has become the cause of many unfortunated incidents resulting in harm to others as well as the abusers themselves.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initiated a nation-wide research programme,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and to raise the level of public awareness. The goal of this research was to begin a nation-wide campaign against drug abuse.

The research team was composed of the Advisory Committee members and the staff of the Youth Depart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d Cross. The data were collected in February 1988 with the collaboration of the staff and volunteers in the local Chapters. The respondents were allocated nation-wide by the quota sampling method.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the respondents in three groups: 2,700 to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605 to working youths, and 916 to delinquent youths. A total of 4,22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II.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respondents in each group were selected evenly from rural and urban areas.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an be described as follow: in case of students, the propor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respondents, and between senior high school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were almost evenly distributed. In case of working youths, the proportion of females (80.5%)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students and the delinquents groups.

Delinquent youths were defined as those currently being under custody of the centers for juvenile delinquents. Of this number, 38.8% and 68.2% were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drop-outs respectively.

The majority of them (92.6%) were male. As for the family background of the respondents, the proportion of those residing in poverty-stricken areas, and the proportion of those from broken families were higher in case of working youths and delinquent youths than those in case of students.

III. Present Patterns of Drug Abuse

The following summarizes the presents of drug abuse, as tabulated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1. Smoking

The percentage of youths who smoke was 36% in the student group , 32% in the working youths group, and 94.4% in the delinquent youths group.

2. Alcohol

50.3% of students, 71.6% of working youths, and 93.3% of delinquent youths has experienced drinking alcohol beverages.

3. Tonic : non - 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popular in Korea and Japan

The percentage of those who have used tonic at least once was over 90% in all of the three groups.

4. Sedative

About 70% of each group has used sedative with the proportion of working youths use higher than those in other groups.

5. Stimulants

Those who have used stimulants comprised around 15% in each group.

6. Tranquilizers

Somewhat less than 5% of students and working youths, and 28% of delinquent youths, have used tranquilizers.

7. Hypnotics

The users of hypnotics amounted to 0.4% of students, 2.6% of working youths and 7.1% of delinquent youths.

8. Marihuana

Those who have used marihuana indicated 0.7% of students, 0.8% of working youths, and 13% of delinquent youths.

9. Glue-sniffing

The percentage of glue-sniffing was 3.7%, 5% in the students group and in the youths group respectively, but the proportion was unusually high, at 40.7% in the delinquent youths group.

From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present situation of drug abuse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 high percentage of Korean youths have experienced smoking cigarettes and drinking alcoholic beverages.

2. Tonics (non-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antipyretic analgesics and stimulants quite regularly used.

3. Tranquilizers, hypnotics, marihuana and glue-sniffing are more widely used among delinquent youths than the other youths. From this fact, there exists a correlation between drug abuse and juvenile delinquency.

IV. Time-series Analysis of the First Experience of Drug Abuse and Deviant Behaviour

The respondents were asked when they were first exposed to drugs and when they committed deviant acts. By calculating the average age of each experience, the following pattern was found (See Figure 1).

Youths are first exposed to drugs by abuse of tonic (non-alcoholic, caffeinated beverages). At the age of 13, they smoke cigarettes, the use of antipyretic analgesics begins at 14 year old, while at the age of 15, they use tranquilizers, and at 16 hypnotics.

The period of drug abuse which starts from drinking caffeinated beverages and smoking cigarettes and ends in the use of hypnotics takes about three years.

During this period, other delinquent behaviours begin to surface, that is, at the age of 13 when smoking cigarettes begins, the delinquent behaviour pattern starts with truancy. Next, they start taking money from others by using physical force. Prior to the age of 15, they are suspended from school, become hostile to adults, begin running away from home, and start using stimulants and alcohol. Soon they become involved even in glue-sniffing and in the use of marihuana.

At the age of 15, they begin to see adult videos and carry weapons. Sexual promiscuity and usage of tranquilizers follows the viewing of adult videos.

Consequently, by the time they reach the age of 16, they visit drinking establishments, and are picked up by police for committing delinquent acts. And finally, they come to use hypnotic-type drugs.

From the above descriptions, drug abuse can be assumed to have a close correlation with delinquent behaviour.

V. Social Factors Related to Drug Abuse

As for the Korean youths, glue-sniffing is found to be related to aggressive delinquency, in such cases as run-aways, being picked up by the police, and taking money by force.

Smoking cigarettes and drinking alcohol is found to be related to seeing adult videos and visiting drinking establishments.

Hypnotics and marihuana were found to be representative of drugs which are related to degenerative delinquency, irrespective of social delinquency.

The social factors connected with these drug abuse are as follows:

1. Individual factors

Male students were more heavily involved in the usage of drug than females. Youths who do not attend church we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drugs than those who attend.

2. Family factors

The youths who were displeased with their mothers smoking and those who thought their parents did not love each other, or those whose parents had used drugs without prescription, were more likely to be drug users.

3. School factors

Those youths who found school life boring, were unsuccessful in their studies, spend most of their time with friends, feel their teachers smoke too much, those who had a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teachers smoking were likely to be drug users.

To sum up, drug abusers depend on the influence of their parents, teachers and peers.

VI. Reasons for Drug Abuse

Korean students have mainly used drugs to release stress (42.8%), to stay awake (19.7%), and because of the easy accessibility of drugs(16.6%).

Other reasons are due to their ignorance of the side effects of the drugs (3.6%), natural curiosity (4.2%), and to increase strength(3.0%).

From the above facts, the major reasons for drug abuse among Korean youths are to release stress and to stay awake in order to prepare exams.

Furthermore, since drugs are readily available, we can conclude that drug abuse is caused by the school system(such as entrance exams) in Korea.

VII. Conclusion

Drug usage among Korean youths are relatively less common than those of western youths.

In some cases, such as, glue-sniffing and use of stimulants, the pattern of drug abuse is found.

Moreover, early drug abuse is evident, and it has a close connection with deviant behaviour, resulting in juvenile delinquency.

Drug abuse cannot be attributed to any one social factor. Specifically, drug abuse depends on parents, peers, teachers and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also is influenced by so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entrance exam system.

Every person and organization concerned with youth must participate collectively in restraining drug abuse.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social agencial working for youth welfare should make every effort to tackle this serious problem confronted by the Korean youths today.